

# 하화도·관매도·반월박지도 ‘찾고 싶은 봄 섬’

〈여수〉

〈진도〉

〈신안〉

## 행안부·한국섬진흥원 선정 꽃 주제... 전국 5곳 중 3곳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21일 공동으로 ‘꽃(색깔)’을 주제로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 섬’ 5개 섬에 전남지역 여수 하화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3곳이 선정됐다.

여수 하화도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작용으로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인 해식으로 이뤄진 천혜의 절벽 자연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섬 전체에 만발해 꽃섬으로 불린다.

해안가를 따라 탐방하는 둘레길(꽃섬길)과 출렁다리, 야생화 단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은 일품이다.

진도 관매도는 지난해 여름 캠핑섬 선정에 이어 올해 봄의 전령, 유채꽃 섬으로 선정됐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 조성한 10ha 면적에 만발하는 유채꽃은 4~5월 섬 중심부에서 노랗게 물들인다.

선박을 활용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드넓은 유채꽃밭은 관매도를 탐방하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행안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찾고싶은 봄 섬에 선정된 신안군 반월박지도.

전남도 제공

신안 반월박지도는 퍼플섬으로 유명하다. 반달 모양의 반월도와 박 모양의 박지도가 보랏빛 다리로 연결됐다.

박지도는 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 반월도에는 라일락, 수국 등이 만개해 보랏빛 꽃이 절경을 이룬다.

박지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걸어서 반월도로 건너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퍼플교를 중심으로 갯벌과 트래킹 코스를 체험하고 자연을 즐기며 편히 쉬어가는 보라색 성지의 섬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 시·군, 주민이 함께 가꾼 ‘가고 싶은 섬’이 올봄 섬으로 선정된 것은 주민들의 노력한 결과”라며 “섬 관광에 관심 있는 여행객들의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국 33개 섬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에 어울리는 여행 주제를 정하고 적합한 섬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찾아가고 싶은 봄 섬’에는 인천 용진 장봉도와 경남 통영 한산도가 함께 선정됐다.

박간재 기자

## 강진군민과의 대화 성황 건의사항 78건 접수



강진군은 지난 20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강진원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상 촬영은 지난 1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11개 읍면에서 총 78건의 읍면 주민속원사업을 사전에 접수해 사전 편집을 거쳐 제작됐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읍면 순회 방식에서 전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해 각 읍면 상황 및 건의사항을 전 군민이 공유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군민이 화합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번 군민과 대화에서 총 7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강진=김윤복 기자

## 해남 황칠나무 품목 최초 지리적 표시 임산물 등록

해남군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로 등록된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황칠나무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를 최종 통과해 산림청 공고로 앞두고 있다.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남 황칠나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해남황칠나무가 최종 등록되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 무안군, 하천 정화 활동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난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계면 용계천과 도림천 일대에서 수질개선 캠페인 및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공무원 및 푸른무안21협의회 회원 등이 2.8km 구간에 걸쳐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안=김행언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확보·현안사업 해결 전력

완도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국가 계획 반영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는 기재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해양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국립남대수목원 조기 조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등 현안 사업의 당위성에 대

해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를 찾아 윤재갑 국회의원, 국토위 소속 맹성규 국회의원 등과 현안사업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기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현안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

## 도서관 이용 군민독서실태조사 강진군도서관

강진군도서관은 강진군민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도서관 이용과 독서 실태 등을 조사하고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독서실태조사는 군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연령대별, 성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설문지를 이용해 1:1로 직접 설문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도서관 이용 경험, 독서 인식, 독서 유형, 독서율, 독서량, 독서 시간, 독서 장에 요인 등으로, 결과는 도서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군도서관은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이 군민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책 많이 읽는 강진 만들기 정책 지원’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 무안군, 물맞이골서 치유의 숲 개장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7일 무안읍 물맞이골에서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을 정식 개장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무안 연장산 자락에 있는 물맞이 치유의 숲은 무안읍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의 뛰

어난 접근성과 양호한 산림을 가지고 있어 무안의 대표적인 숲속 힐링 장소이다.

이번에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80억원의 사업비로 총면적 125ha에 치유 센터, 숲속화장실, 치유숲길, 치유정원, 수(水) 치유시설, 전망대, 자연암 폭포 등으로 조성됐다

군은 치유의 숲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무료로 운영

할 예정이며 6월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치유의 숲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프로그램 이용 요금은 5000원으로 무안군민 및 만 13세 미만의 돌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은 50% 할인한 금액을 적용한다. 물맞이 치유의 숲 홈페이지(www.muang.kr/chiyu)를 참고하면 된다. 물맞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및 전화(070-7655-5596-7) 예약이 가능하다.

무안=김행언 기자

##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남군, 상반기 130명 배정

해남군은 어업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3월부터 몽골 셀렝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을 어가에 배치했다.

이번 계절근로자는 지난 1월 해남군과 몽골 셀렝게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1차 입국했으며 이후 어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 순차 입국한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130명의 인력을 배정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가운데 하반기 필리핀 근로자 15명이 고용돼 현재까지 어업분야에는 29명이 입국, 8어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완도군 “해양치유 1000만시대” 관광비전 선포식

완도군이 오는 30일 해양치유 관광 비전 선포식을 열고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전북 따기 체험 등 완도만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등 전국의 MZ 체험단,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완도군 관광발전협회 회원 및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해양치유산업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에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관광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포식을 마련하게 됐다.

완도=최경철 기자